아동기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가족화 연구

A Study on Children's Family Drawings by Attachment Classification

진미경(Mi Kyoung Jin)[1)]
이경숙(Kyung Sook Lee)[2)]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school aged children, its relation to classification of family drawings, and their association with children's perceptions about families.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43 children 6- 9 years of age was evaluated by the Manchester Attachment Story Task (Green, Stanley, & Goldwyn, 2003) children's family drawings were classified by Fury's Family Drawing Scales (1996). Results showed that 12 children (28%) were avoidant, 23 (54%) secure, 4 (9%) resistant, and 4 (9%) were disorganized. Classification of childhood attachment representation showed a high concordance rate (86%) with family drawings. Securely Attached children showed positive perceptions such as family pride/happiness and vitality/creativity while Insecure children showed negative perceptions like emotional distance, tension and bizarreness.

Key Words : 아동기(childhood), 애착 표상(attachment representation), 애착 유형(attachment classification), 가족화(family drawing).

Ⅰ. 서 론

John Bowlby(1969)의 '내적 실행 모델'의 개념은 애착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Bowlby에 따르면 영아는 생애 초기에 맺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 속에서 양육자의 가용성(availa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을 기초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조직한다고 가정하였다. 이후 애착 연구자들에 의해 애착과 관련한 개인의 내적 표상 즉 내적실행모델에서의 개인차를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처음 시도로 영아기 애착 측정 도구인 '낯선 상황 실

[1)]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2)]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 Kyoung Jin,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Cheonan 330-707, Korea
E-mail : mkjin@nsu.ac.kr

험'이 개발되어 애착 평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영아기 애착 측정 도구인 '낯선 상황 실험'이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는 초기 애착관계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주로 영아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아기 애착 상태가 유아기나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어 왔으나 영아기 이후 유아의 애착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유아기 애착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다(Bretherton, Ridgway, & Cassidy, 1990; Main & Cassidy, 1988). Main & Cassidy(1988)는 학령전기 아동들의 부모 자녀 애착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격리-재결합 절차를 이용한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Bretherton과 그녀의 동료들(1990)은 인형놀이를 통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로 인해 유아기 및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애착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애착관계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연구나,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실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Main & Cassidy(1988)의 격리-재결합 절차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도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 연구가 이루어졌다(홍계옥 · 최경순, 1996). 또한 Bretherton과 그녀의 동료들이 고안한 애착이야기 완성 과제 방법을 이용하여 이진숙(2001)에 의해 국내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와 유사한 기법으로 이야기 완성 과제 방법인 MacArthur Story-Stom Battery(MSSB)를 이용하여 표상에 근거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신의진 · 이경숙 · 이예란, 1999). 그러나 유아기 및 아동기 애착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들이 6세 이전의 학령전기 아동들의 애착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6세 이전의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의 부재로,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고안되었다(Green, Stanley, & Goldwyn, 2003). 이들은 학령기 아동들의 내적작동모델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영아와 성인기 애착 연구들로부터 여러 개념과 방법론을 응용하여 인형놀이완성방법인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를 개발하여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 도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로 측정된 아동의 애착 유형과 성인애착면접을 통해 측정한 아동의 어머니들의 애착유형과 일치도 또한 61%에서 65%사이의 수치를 보여(Green, Stanley, & Goldwyn, 2003), 좋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가진 도구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표상 유형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를 통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한편, Kaplan & Main(1985)은 아동들의 그림들이 애착 표상을 나타내는 풍부한 방법들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림의 비언어적인 본질들이 아동으로 하여금 감정들과 태도들을 자유로이 표현하도록 한다고 논의해 왔다. Bowlby(1973) 역시 애착 경험들의 표상들, 구체적으로 내적작동모델이 그림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가족 그림에서 어떤 특징들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Kaplan & Main(1985)은 영아기에 다양한 애착 히스토리를 가졌던 5세에서 7세 아동들의 그림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안정, 회피, 저항, 비조직화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아동들의 그림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였다. 이들이 발견한 특징들에 따르면, 회피 아동은 개체화의 부족, 아동과 어머니와의 거리감, 어머니나 아동의 생략, 과장된 머리, 색깔의 부족, 팔을 몸에 가까이 붙인 채 아래로 향하거나, 변장한 가족구성원들의 특징들을 보였고, 저항애착 아동들은 인물들이 몰려있거나 겹쳐있거나, 장애물에 의해 분리된 인물들, 이례적으로 작은 혹은 큰 인물들, 종이의 가장자리에 그림을 그리거나, 몸, 팔과 손, 얼굴 특징들의 과장을 보였다. 비조직화 애착유형은 잘못된 시작들, 웅크린 인물들, 이례적인 상징들 혹은 장면들을 보였다. 또한 Fury(1996)등의 연구에서도 초기 애착 유형에 따라 Kaplan과 Main(1985)이 보고한 유형별 그림에서의 특성들이 나타났고, 그림검사 도구의 척도들이 불안정 애착 유형과 상당히 유의미하게 관련됨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애착 유형에 따라 가족화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있어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은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애착관계 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총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임상장면에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통한 통합적인 진단은 더욱 강력한 예언력을 가질 것이다. 예컨대, 아동이 충분한 이야기를 제시하지 않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가족화를 통한 애착 표상의 이해는 애착 표상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표상을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의 부재와 이로 인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고려할 때,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표상을 측정하는 도구의 적용과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를 통한 아동의 애착 표상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애착 표상 유형과 가족화를 통한 애착 유형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애착 표상에 따라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표집은 2006년 9월부터 11월 까지 2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유치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부모자녀 관계 평가에 대한 인쇄물을 유치원에 배부하였고, 관심을 갖고 신청한 부모들과, 이들 부모들을 통해 부모자녀 평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참여 의사를 밝힌 부모들의 아동들 43명이 참여하였다. 아동들의 연령은 6세-9세였는데, 6-7세 아동들은 유치원을 통해 참여하게 된 아동들이었고, 8-9세 아동들은 인쇄물 홍보를 통해 참여하게 된 아동들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중류층 가정이었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29세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모든 어머니가 고등학교졸업 이상이었고, 86% 이상이 전문대졸업 이상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부모자녀 관계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제공되었다.

2. 측정도구

1) 맨체스터 애착이야기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애착 표상을 평가하기 위해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가 이용되어 졌다. 이 도구는 낯선상황실험의 개념과 성인애착 면접의 개념을 통합하여 고안된 도구로 인형놀이를 통한 이야기 완성 검사이다. 실험자는 아이에게 다쳤을 때, 아플 때, 악몽을 꾸었을 때,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을 연출해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아이는 인형놀이를 통해 이야기를 완성하게 되며, 이야기의 내용과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바탕으로 9점 척도의 다양한 양육에 대한 척도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진미경 · 유미숙, 2005a). 구체적으로, 근접성 추구(proximity), 양육자의 따뜻함(carer warmth), 양육자 민감성(carer sensitivity), 자기 돌봄(self-care), 강압적(intrusiveness), 갈등이 있는 행동(conflicted behavior)등의 척도를 바탕으로 아동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자기 돌봄의 척도에서 5점 이상을 받는 경우 회피유형으로 분류되며, 강압적, 갈등이 있는 행동 척도에서 5점 이상을 받는 경우 저항유형으로 분류된다. 만약 아동이 이야기 완성에 있어 거의 침묵으로 일관 할 때에는, 아동이 회피전략으로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전략의 부재로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인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는 아동의 이야기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인애착 면접의 개념인 일관성(cohere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담화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질적인 측면), 담화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지(양적인 측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관련성의 측면), 어법상 명확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 하는지(양식의 측면)를 평가한다(진미경 · 유미숙, 2005a; Green, Stanley, & Goldwyn, 2003).

이러한 척도들을 바탕으로, 애착 표상은 크게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비조직화 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 각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스트레스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완화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안정애착의 아동은 스트레스를 공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엄마의 돌봄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완화됨을 보여준다. 회피유형의 아동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기 돌봄의 형태를 보이거나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거부를 보인다. 저항애착 유형의 아이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양육자를 등장시키지만,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만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반되는 행동(contradictory behavior)들을 보이게 된다. 비조직화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1)전략(strategy) 자체가 부재이거나, 2)여러 가지 전략들이 혼합된 경우, 3)동시적 혹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상반된 행동, 4) 맥락 밖의 상반된 행동으로의 갑작스런 움직임, 5) 불완전한 움직임들, 순간적인 얼어붙는 듯한 행동이나 정지 자세, 6)부모를 향한 두려움, 7)직접적인 비조직화된 행동들 등이 관련된 지표들이다(진미경 · 유미숙, 2005a).

본 연구에서는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 전 과정이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애착유형 분류는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절차와 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수하고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한 본 논문의 첫 번째 저자와 일정 훈련을 받은 상담 전공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k=.89, p=.00였다.

불일치를 보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2) 가족그림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족 표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Fury(1996)에 의해 고안된 가족화 그림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를 위해 아동들에게 12×18인치의 흰 종이와 연필이 주어졌다. 이러한 작업은 부모와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되었고, 각 아동은 가족그림을 그리도록 요청되어 졌다. 아동들이 가능한 개방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족 그림을 그리도록 요청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지시사항이 주어지지 않았다. 작업이 완성된 후에는 아동들이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을 식별하게 하고 그들이 아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야기 하도록 요구되어졌다.

가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들은 생명력/창조성, 가족에 대한 긍지/ 행복감,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분노, 역할전이, 기이함 척도들이며 모두 7(1-7)점 척도들로 구성되어진다. 구체적으로 생명력/창조성은 그림에서 장식, 상세함, 창조성에 반영된 아동의 노력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가족에 대한 긍지/행복감은 가족구성원에 소속감 혹은 행복감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취약성은 인물들의 크기 왜곡, 위치, 신체 일부의 과장에서 반영된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다음으로 정서적 거리감은 아동과 가족 사이의 중립적 혹은 부정적 정서, 거리감과 관련된 척도이며, 긴장/분노는 색채나 상세함이 없이 갑갑하게 보이는 인물들에 반영된 긴장, 분노를 나타낸다. 역할전이는 인물들의 역할 혹은 크기에서 반영된 역할전이의 특징들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기이함은 그림에 나타난 이례적인 상징들, 환상적인 주제들과 관련된 척도이다.

이 척도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저자와 상담 전공의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두 평정자 간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평가는 아동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이루어 졌으며, 불일치를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표 1〉 Kaplan과 Main의 애착 유형별 가족화의 특징 체크리스트

회피 애착 사인	저항 애착 사인
개별화의 부족	인물들이 겹쳐 있거나 모아져 있음
아동과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음	장애물에 의해 인물들이 분리됨
엄마 혹은 아동의 생략	유난히 작은 인물들
팔이 몸에 가까이 붙어 아래로 향함	유난히 큰 인물들
머리의 과장	종이의 구석에 인물들 그림
색채의 부족	얼굴 특성들의 과장
변장한 가족 구성원들	손/팔의 과장
불안정 애착 사인	**비조직화 사인**
배경의 상세함의 부족	잘못된 시작
인물들이 정착되지 않고 떠 있음	웅크린 인물들
완성되지 않은 인물들	기이한 사인/ 상징/ 장면들
엄마가 여성화 되어 있지 않음	
남성/여성의 성적 차이가 없음	
중립적/ 부정적 얼굴 정서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족화의 애착 유형별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해, Kaplan & Main(1985)의 애착 유형별 가족화 특징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유형 분류를 하였다. 구체적인 애착 유형별 가족화 특징 체크리스트들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화에 따른 유형 분류 평가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저자와 상담 전공의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두 평정자 간의 일치도는 k=.93, p=.00 였다. 평가는 아동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이루어 졌으며, 불일치를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동들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알아보았고, 아동의 애착 표상과 가족화를 통한 애착 유형별 특징이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이 이용되었다. 아동들의 애착 표상에 따른 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이 이용되었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

맨체스터 애착이야기 검사를 통해 얻어진 아동들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유형분포(ABC)에 있어서는 30%인 13명이 회피유형, 54%인 23명이 안정애착, 16%인 7명이 저항애착으로 분류되었다. 비조직화 애착 유형을 포함한 네 가지 유형분포(ABCD)에 있어서는, 28%인

〈표 2〉 아동 애착 유형과 가족화 유형 분포

가족화 유형	아동 애착				
	회피(A) (n=12)	안정(B) (n=23)	저항(C) (n=4)	비조직(D) (n=4)	전체 (N=43)
회피(A) (n=11)	6 (50%)	2 (8.7%)	2 (50%)	1 (25%)	11 (25.6%)
안정(B) (n=19)	1 (8.3%)	18 (78.3%)	0 (0%)	0 (0%)	27 (44.2%)
저항(C) (n=10)	5 (41.7%)	2 (8.7%)	2 (50%)	1 (25%)	8 (23.3%)
비조직(D) (n=3)	0 (0%)	1 (4.3%)	0 (0%)	2 (50%)	3 (7%)
전 체 (n=43)	12 (27.9%)	23 (53.5%)	4 (9.3%)	4 (9.3%)	43 (100%)

12명이 회피유형, 54%인 23명이 안정애착, 9%인 4명이 저항애착, 9%인 4명이 비조직화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 아동의 애착 표상 유형과 가족화를 통한 유형 분류의 관계

맨체스터 애착이야기 검사를 통해 얻어진 아동들의 애착 표상 유형과 가족화를 통해 애착 유형별 특징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네 가지 유형간 일치율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각 유형별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안정 애착 대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이 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면서 가족화를 통한 분류도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모두 18명으로 42%였으며, 아동이 불안정 애착 표상(회피, 저항, 비조직)으로 분류되면서 가족화를 통한 분류도 불안정 애착 유형(회피, 저항, 비조직)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모두 19명으로 44%였다. 아동이 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었으나 가족화를 통해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은 5명으로 12%였다. 반대로 아동이 불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었으나 가족화를 통해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은 1명으로 2%를 차지하였다.

3. 아동의 애착 표상과 가족에 대한 인식의 관계

다음으로 아동의 애착 표상이 이들의 가족에 대한 표상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3>은 생명력/창조성, 가족에 대한 긍지/ 행복감,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분노, 역할전이, 기이함 척도들이 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들과 불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들 간의 비교를 나타낸다.

〈표 3〉 아동 애착 유형과 가족화 척도의 관계

가족화 척도	아동 애착				
	안정애착 (n=23)		불안정 애착 (n=20)		
	M	*SD*	*M*	*SD*	*t*
생명력/창조성	5.22	1.24	2.65	1.53	-6.07***
가족 긍지/행복	5.13	1.42	2.55	1.43	-5.91***
취약성	2.61	1.44	5.25	1.55	5.79***
정서적 거리감	2.70	1.84	5.30	2.13	4.30***
긴장	2.70	1.49	4.80	1.58	4.50***
역할전이	2.00	1.00	2.65	1.81	1.43
기괴함	1.91	.10	3.80	2.02	3.80**

**p<.01 ***p<.001

분석결과, 안정 애착 유형 집단이 생명력 척도(t(41)=-6.07, p<.001), 가족 긍지 척도(t(41)=-5.91, p<.001) 점수에서 높았다. 또한 불안정 애착 유형 집단이 취약성 척도(t(41)=5.79, p<.001), 정서적 거리감 척도(t(41)=4.30, p<.001), 긴장 척도(t(41)=4.50, p<.001), 기이함 척도(t(27)=3.80, p<.01) 점수에서 높았다. 그러나 역할 전이에서는 안정 애착 대 불안정 애착 유형간 차이가 없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유형 분포를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가족화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며, 어떻게 가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들의 애착 유형 분포에 있어서는, 세 가지 유형분포(ABC)로 분류하였을 때, 회피 유형 30%, 안정 애착 54%, 저항 애착 16%로 분류되었다.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Goldwyn등(2000)은 만 5.2세에서 7.7세 아동들의 애착 유형을 분석한 결과, 회피 애착 26%, 안정 애착 62%, 저항 애착 8%, 분류할 수 없음 4%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각 유형별로 분포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학령기 아동의 애착 유형 분포는 아니지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애착 유형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는, 안정 애착 분포 비율에 있어 글로벌 분포인 65%(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에 비해 다소 낮은 분포 비율을 보였고, 저항 애착 분포 비율에서는 글로벌 분포인 14%(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와 비슷한 분포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회피유형 분포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다소 차이들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1%의 글로벌 분포와 비교해 28%로 다소 높은 분포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유효순(1985)의 연구가 29%의 회피 유형 분포를 보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회피 유형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박응임(1994)의 연구는 16%, 진미경 · 유미숙(2005b)의 연구는 2.5%를 보고한 것과 비교해서는 높은 비율의 회피 유형을 보였다.

또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도구를 이용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애착 유형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는, Bretherton등(1990)이 65.5% 안정 애착, 20.7% 회피 애착, 13.8%의 비조직 유형을 보고하였으며, 이진숙(2001)이 56.4% 안정 애착, 22.8% 회피 애착, 20.8% 비조직 유형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가 다소 높은 비율의 회피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분포 비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도구의 적용시 각각의 선행연구들이 다른 기준의 절차 수정과 평정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각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논의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의 연령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논의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영아기와, 유아기,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표상 분포들이 약간의 차이들을 보이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연령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논의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의 애착 표상과 가족화를 통한 애착 유형별 특징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선 안정 애착 대 불안정 애착 유형간 일치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아동이 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면서 가족화를 통해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모두 18명으로 42%였으며, 불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면서 가족화를 통해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모두 19명으로 44%였다.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유형간 일치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86%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는 43명의 아동 중 37명이 애착 표상과 가족화를 통한 분류가 일치를 보인 것으로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Fury(199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의 안정 애착 표상과 가족화를 통한 유형 분류가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임상장면에서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아동들의 애착 표상 유형에 따라 그들의 가족 그림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인식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안정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이 그림에 있어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 기괴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가족에 대한 긍지, 생명력과 같은 긍정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부적응 집단의 아동이 가족 그림을 그릴 때 가족구성원을 생략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Myers(1978)의 연구 결과나 정서적 부적응 집단의 아동이 가족구성원 사이에 장애물을 더 많이 그렸다는 Weinstein(196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안정애착 아동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불안정 애착 아동이 분노가 많고 냉담하고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애착 관련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김숙령, 1995; Sroufe, 1983).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은 가족 역동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에게 형성된 애착 관계는 내적인 심상의 형태로 아동에게 내면화되고 이러한 내적인 표상은 가족 관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건강한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는 질 좋은 안정된 애착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화를 통한 평가가 아동의 애착 표상과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아동의 그림이 아동의 애착 표상을 이해하는 도구로, 임상 장면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지지한다. 여러 척도들의 통합적 이용은 보다 강력한 예언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발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언어적 기술이 여전히 제한적인 아동들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제기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가 43명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연구 대상의 표집에 있어 다양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상 본 연구에서 아동의 애착 평가를 위해 이용된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추후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족화 척도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의 내용은 아동의 인지 수준과 관련되므로, 척도의 적용에 있어 연령별 아동들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김숙령(1995). 유아의 애착상태와 유치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들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5**(1), 21-38.

박응임(1994).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의진 · 이경숙 · 이혜란(1999). 학령전기 아동의 심적 표상 : 부모에 대한 심적 표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의학**, **10**(1), 21-33.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미경 · 유미숙(2005a). 애착측정 도구들에 대한 개관 : 시기별, 영역별 애착 평가를 위한 도구들의 개관. **인간발달연구**, **12**(4), 139-158.

진미경 · 유미숙(2005b). 한국 영아들과 미국 영아들의 애착 분포와 행동 특성 비교. **아동학회지**, **26**(6), 17-28.

홍계옥 · 최경순(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 Erlbaum.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 Vol. I : Attachment*. NY : Basic Books.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II* :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 Basic Books.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rears(pp.293-308). Chicago Press.

Fury, G. (1996). *The relation between infant attachment history and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in school-aged family draw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Goldwyn, R, Stanley, C., Smith, V., & Green, J. (2000). 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 relationship with parental AAI, SAT and child behaviour.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 71-84.

Green, J., Stanley, C., & Goldwyn, R. (2003).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Manchester.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an(Eds.), *Syntax and Semantics III :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Kaplan, N., & Main, M. (1985). Children's in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as seen in family drawings and in a separation anxiety interview. In M. Main(Chair), *Attachment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Symposium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6 :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12.

Main, M., George, C., & Kaplan, N. (1985). *The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ain, M., Goldwyn, G., & Hesse, E. (2002). *Adult Attachment scoring and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yers, D. V. (1978). Toward an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 for the Kinetic Drawing.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358-365, 1978.

Sroufe, L. A. (1983). Infant-care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s.),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16*, 41-81.

Van IJzendoorn, M. H., & Kroonenberg, P. M. (1988).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 A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Weinstein, L. (1965). Social schema of emotionally disturbed bo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0*, 457-461.

2007년 4월 30일 투고 : 2007년 7월 6일 채택